

한 영 채

## 한국 야생 인삼 연구소

## \*장뇌삼의 유래

옛날 자연생의 산삼을 사람을 닮았다고하여, 인삼이라 했다. 그러나 야생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후부터, 야생인 것을 산삼, 재배한 것을 재배인삼 혹은 가삼이라 했다. 우리나라는 이조초기부터 시행한 공삼제도로 초기에는 103개군 말기에는 53개군에서 산삼을 공출받았다. 이로인한 산삼의 난획이 시작되면서, 천연야생인삼인 산삼은 품귀상태가 되고, 심산오지의 농민들은 산삼 즉 장뇌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초기의 장뇌삼재배는 주로 화전민들 사이에서 성행 되었고, 간단한 해가림 과 우로 방지물 정도의 극히 초보적인 재배방식이였다. 해방후에도 산삼을 채취하는 심마니들의 인삼채취허가는 영림서에서 발부했으나, 그후 이 제도는 중지되였다. 일제시대에는 장뇌삼 적지에 재배허가를 하여, 품질계량을 도모하였고, 인삼의 3배가격으로 수납해간 사실이 있다. 그들은 강원도 양구군, 의문동, 백현과 인제군, 화천군, 정성군 등의 오지에서 장뇌삼재배를 비밀리에 장려한 사실이 있다.

## \*장뇌삼의 허가와 양성화

1978년 10월에 본인이 고려인삼 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근무시 산양산삼 즉, 장뇌삼을 음성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경작자들이 다수있음을 당시 하계구 전매청장에게 보고, 이들의 양성화를 건의한바 우선 강원도 일대의 장뇌삼경작자들을 조사 그들에게 춘천전매지청이 장뇌삼 경작허가증을 발부한 사실이 있다. 그들중에는 약150년 전 부터 대대로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강원도 삼척군 노곡면 여삼리, 근덕면, 정성군 정선면, 도계면, 춘성군 동면 조비리, 태백의 황지, 평창, 도암면 등 50여명이 허가증을 발부 받았다. 제1호는 대기리거주 박부동이며, 그는 장뇌삼재배의 살아있는 증인이다. 그후 1985년5월에 전주전매청장이 구분 야생삼이라하여, 정체상씨에게 인삼경작허가증을 발부한 사실이 있다. 그는 현재 약30~50만주의 20~25년생 장뇌삼을 경작하고 있다.

## \*장뇌삼의 경작현황

기타 장뇌삼 대경작자로서는 거창의 황씨가 20만주, 전주의 정씨가 80만주, 금능군 수도면의 김씨가 약80만주, 강원도 태백의 임씨가 약50만주, 강원도 김씨가 약70만주, 인삼을 경작하는김씨가 약100만주(이분들의 이름은 본인들의 희망에 의하여 삭제한다)

기타 풍기지방, 지리산, 태백,소백산 충북괴산군일대에서 비밀리에 경작하는 경작인  
을 합하여, 족히 100명이 넘으며, 식재총본수는 수백만본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영세성, 비전문성으로 판매유통질서가 혼탁하여 많은 애로가 있다.

\*야생인삼의 보호육성법이 필요하다.

이와같이 전매청에서도 장뇌삼의 경작허가증을 발부해 놓고도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과 판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을뿐아니라 1981년에는 전매청과 인삼연구소에서  
장뇌삼에대한 홍보나 연구를 산삼이팔리면, 인삼판매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연구  
조사를 금지시킨 일이있다. 한국하면, 인삼 인삼하면, 한국을 연상시키지만, 오늘날  
인삼중주국으로서의 위치에 대하여 도전하는 국가들이 많다.

\*외국의 야생인삼 현황

1992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국제인삼심포지움에 본인도 참석했었다. 그들은  
인삼재배를 국책으로 관 과 민이 협력하여, 대대적인 경작이 막 시작하고 있으며,  
야생인삼의 임간재배도 성행하고 있다. 1975년부터 호주에서도 임간재배가 시작됐다.  
홍콩등 국제시장에 그들은 야생인삼(WILD GINSANG)이라는 상표로 재배인삼보다  
높은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일부사람들은 자연방임식방법에 의한 임간재배 장뇌삼이  
재배인삼보다 나올것이 없다고 굳이고집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가당착이라 하겠다.  
국내뿐아니라 세계가 모두 무공해 자연인삼인 야생인삼(장뇌삼)을 선호하고 있는데,  
진취성없는 사고방식은 시대에 낙오할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 일부 한의대  
교수들은 전매청장의 장뇌삼, 야생삼으로 허가한 야생인삼을 굳이 인삼이라하여,  
재배인삼과 아무런 구별없이 호칭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다.

\*야생인삼의 연근 측정

산삼의 나이 즉, 연근에 대하여 어떤 심마니들은 300, 500, 800년 생일것이라 하여  
T.V에 선전하고 있으나 과학적 결론은 150~200년은 성장할 것이며, 200년정도는  
심마니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야생인삼의 정확한 나이를 정확히 적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야생인삼은 유년기 50년, 장년기100년, 노년기 150년까지로  
구분되고 있다. 현하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인삼의 나이를 책정한 국가적 과학적 정확한  
기준이 없다.

\*야생인삼과 재배삼의 성분 및 약리효능

장뇌삼의 성분과 약리효능에 대한 인삼과의 대비연구보고서는 매우 희귀하다. 결론적  
으로 야생인삼인 장뇌삼의 성분과 효능은 재배인삼보다 우수하다. 동국대 강병수  
교수는 1993년 인삼의 재배방법에 따른 정유성분에관한 연구논문에서 장뇌삼은  
재배인삼보다 향기성분인 정유성분이 월등이 높다고 했으며, IWABUCH등은 염기성분  
에서 인삼향기성분으로 PYZARINE계성분을 동정보고한바있으며, 인삼의 약리성분과 관계가  
있는 SEAGUITERPENE류의 성분이 재배인삼과 장뇌삼에서 각기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각기효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정유성분의 함량은 산삼종자밭2년, 산6년, 산삼종자밭4년, 산8년이 87%가 증가했다. 따라서 장뇌삼은 재배삼보다 향기성분이 월등높다고했다. 1997~1980년까지 임업연구원 이명보, 오민영팀은 광릉시험장내의 산린에서의 인삼재배적지에 관한 연구에서 임간재배한 장뇌삼은 SAPONIN, 조지방, 조섬유 등의 성분이 관행보다 월등히 많았다고 했다.

이와같이 성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미 1954년 소련의 발란딘(BALAN D.A)와 고비르프(GOVEROV)등에 의하여 밝혀졌다. 전분은 야생인삼 9.4% 백삼에서는 19.5%로 나타났다고 했다. 배당체는 야생인삼이 21% 재배인삼이 19.9%로 야생인삼이 높았다고 했다. 또 브레이크만(BRENKMAN)도 1957년에 야생인삼이 재배인삼보다 약리효능이 높다고 했으며, 피로회복의 효능은 1952년 야생인삼이 136%, 재배인삼은 124%라고 했으며, 산삼을 먹인 쥐의 수영시간은 210% 산양산삼은 167% 재배인삼(홍삼)은 152%, 백삼은 148%로 나타나 산삼의 효능이 월등우수하다고 했다. 이와같이 예부터 산삼을 방초(芳草)라고 했는데 이와같이독특한 아주감미로운 향기성분이 풍부한 야생인삼을 현대인이 선호하게 된 것은 당연한 추세라 할 것이다.

#### \*야생인삼의 장려와 전망

우리나라의 약 65% 강원도는 73%를 점유하고 있는 산지를 이용하여 야생인삼의 임간재배를 장려한다면, 나라의 큰 재원이 될 것이다. 이러기위해서는 전문가들에 의한 적지 조사와 야생인삼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조사, 분포조사, 식물학적분류, 생리 생태학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것이고 기술적 행정적 재원적 지원이 필요하다. 러시아 극동 아카대미와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의하면, 하바로스크 우스리스크 및 핫산 지방에서는 수백년 전부터 야생인삼을 식재하고 있으며, 산삼과 유사한 장뇌삼도 고가로 거래되고있는 것을 보았다. 장백산 길림성 일대의 산간오지에서도 장뇌삼 포지가 많았으며, 이것들의 10년전후의 장뇌삼도 한국에 많이 밀반입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야생인삼의 임간재배가 성행되고 있으며, 야생인삼은 재배인삼보다 높은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삼대경작자 가운데서도 강원도 지방에 장뇌삼을 대량식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인삼의 산지임간재배붐이 일어날 전망이다. 무공해 야생인삼은 그만치 품질이나 약리효능이 우수함으로 야생인삼을 이용한

제품개발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장뇌삼 홍삼의 원형삼이나 장뇌삼주, 드링크등의 수출도 가능하다.